

成人男子의 衣服行動과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과의 相關研究

—衣服의 受容, 身分象徵性, 滿足度を 중심으로—

高 愛 蘭 · 姜 蕙 遠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Body Cathexis and Clothing Behavior of Korean Men

Ae Ran Kok and He 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983.7.1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etween locus of control, body cathexis and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Locus of control was measured by Rotter's The Internal-External Scale and body cathexis by Secord and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Two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were assessed with Lee's questionnaires dealing with status symbol and clothing satisfaction. Clothing Acceptance I was determined with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the acceptance of color and casual wear and Clothing Acceptance II by line drawings of clothing representing formal type, informal type, and new mode type designed to measure the acceptance of business suits.

The questionnaires in this study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men (between 20 to more than 60 years of age) in Seoul. The data from 303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1) Locus of control was not related to Clothing Acceptance I (acceptance of color and casual wear), but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Acceptance II (acceptance of business suit), that is, the persons having wider latitudes of acceptance in business suits were internally controlled in locus of control.

2) Locus of control was negatively related to status symbol, that is, the persons having higher concepts in status symbol were externally controlled in locus of control.

3) Body cathexis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satisfaction, that is, the persons having higher satisfaction toward their clothing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I. 緒 論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이상의 社會集團에 속해있으며

자신이 속한 社會집단의 規範이나 基準에 따라 行動한다. 이러한 규범이나 기준은 衣服에서도 나타나 職業 世界속에 살고 있는 成人男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대하게 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을 입

는 경향이 있다. Hurlock¹⁾은 衣服은 男子들의 社會的地位와 직업내의 成就度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이며 남자는 그의 人生目標에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영역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衣服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에게 있어서의 의복의 重要性은 그들이 속해있는 직업수준에도 연관되어 精神勞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肉體勞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직장안에서 자신의 의복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評價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²⁾. 실제로 男子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어떻게 옷을 입었는가에 기초한다³⁾.

이와같이 남자에게 있어서도 衣服은 신체보호 以上の 役割을 하며 직업세계에서 의복의 사용은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成人男子를 대상으로한 의복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職業世界의 남자들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衣服基準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해 볼때 연령 직업등에 관계된 의복기준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目的은 1) 成人男子의 衣服行動과 強化統制 및 身體의 滿足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며 2) 衣服行動과 年齡 職業·教育水準·經濟水準등의 人口統計學的 變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3) 衣服에 대한 受容度를 조사분석하는데 있다.

II. 文獻의 背景

본 연구와 관련되는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強化統制: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事件이나 社會문제에 대한 態度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Rotter⁴⁾은 이러한 사람들의 社會 또는 個人의 문제에 대한 태도차이를 強化統制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強化란 行動 또는 反應을 일으키는 刺戟 즉, 개인의 주변 환경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強化의 內的統制란 強化를 자기 자신의 행동 또는 能力의 結果로서 知覺하는 것을 의미하며 外的統制란 強化가 幸運·機會 또는 他人의 勢力과 같은 外部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期待하는 것을 뜻한다.

Rotter⁵⁾은 強化의 統制方向을 측정하기 위한 통제방향(Locus of Control) 檢査를 개발하였으며 그 中心前提는 한 개인이 나타내는 통제방향은 過去經驗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며, 특정 強化의 選擇경향은 어느 정도의 一貫性을 지닌다는 것이다. 한 個人에 의해서 知覺

된 一連의 強化는 그의 문제해결에 方向提示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問題를 예측하는 指針이 되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價値觀 또는 態度로서 작용한다. 強化의 內的統制가 강한 사람들은 대개 외적통제가 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自身的 環境을 조정하고자 하는 傾向이 크고 外部操作에 대한 同調性이 낮으며⁶⁾ 名聲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外的 成就에 높은 열망을 나타낸다⁷⁾. 強化統制와 衣服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난 바 없으나 Adams의 연구⁸⁾에서는 成就志向 측정도구의 타당도검사에 사용되어 衣服과의 간접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衣服行動과 많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身體의 滿足度: Ryan⁹⁾은 自我概念을 身體的 自我와 社會的 自我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身體的 自我는 개인에 의하여 認知된 자신의 신체적 特性으로서, 신체적 자아에 관한 연구는 주로 外貌에 대한 滿足을 다루어 왔다고 하였다. Mclean¹⁰⁾ 및 Williams¹¹⁾에 의하면 개인의 身體의 部分·機能 혹은 過程에 대한 滿足度の 測定道具가 Secord와 Jourard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身體的 滿足도가 自我概念에 전적으로 關聯된다는 것이 확신되었다.

男子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Richard와 Hawthone¹²⁾의 연구에서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態度는 의의있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자들이 자신의 身體를 衣服과 分離시켜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자는 身體 表面보다 機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Fisher의 結果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영운¹³⁾은 中年期 女性을 대상으로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 및 의복이 몸에 잘 맞는 정도 사이에 의의있는 正的 相關을 보여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면 자신의 衣服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受容: 衣服受容이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特定한 경우에 着用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衣服의 選擇을 의미한다. Adams⁸⁾에 의하면 Jaskinski는 會社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년 동안 進級되지 못한 職員에게 지위가 더 높은 직원이 임는 것과 똑같은 衣服을 입도록 한 결과, 새로운 衣服채택후 不過 몇 週後에 그 직원은 進級할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衣服基準이 職業上の 職位內에 존재하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假定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Adams⁸⁾는 男子大學生을 대상으로 衣服受容과 성격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社會的 측면의 內的 成就志向의인 사람은 다

른 사람에 대한 衣服受容폭이 넓었고 個人的 측면의 外的 成就志向의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의복수용폭이 넓음을 발견하였다.

身分象徵性 : Form과 Stone²²⁾은 都市化에 의해서 匿名化된 사회에서의 身分象徵性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成人男子에 의해서 신분상징의 端緒로 지적된 것들은 衣服 직업·교육·생활방식등이었다. Creekmore⁴⁴⁾에 의하면 Gate는 職業이 없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 地位와 權威를 추구하는 外的 報償志向의인 사람들의 특징적인 경향은 個性있는 의복과 새로운 流行에 관심을 가지며 衣服으로서 다른사람을 評價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衣服의 滿足度 : 임춘봉¹⁵⁾은 男女大學生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總自我肯定 및 自我에 대한 知覺과 衣服의 滿足度사이에는 남모두 正的 相關關係가 있었으므로 衣服의 滿足도가 自我概念을 측정할 수 있는 유효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成人男子를 대상으로 한 이경손¹⁶⁾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自我概念은 衣服의 滿足도와 正的 상관이 있었다.

流行스타일 : 1982年 流行傾向에 대하여 Man's Wool Club Fashion Manual¹⁷⁾을 分析·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자연스러운 人體의 곡선을 강조하였다. 자켓은 허리 dart 없이 hip 부분을 좁게한 길이가 짧은 形과 dart를 넣어 허리가 들어가고 hip 부분을 넓게 강조한 길이가 긴 形의 두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자켓의 칼라는 폭이 넓어졌으며 너치(notch)의 위치도 상당히 내려왔다. 바지는 허리부분에 주름을 거의 잡지 않으며 폭은 넓게다리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여유가 있고 발목부분은 좁은 형태이다.

Ⅲ. 假 說

成人男子의 衣服行動과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度와의 相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零假說을 설정하였다.

I. 成人男子의 衣服行動과 強化統制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 a. 衣服受容 I과 強化統制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 b. 衣服受容 II와 強化統制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 c. 身分象徵性과 強化統制는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II. 成人男子의 衣服 滿足도와 身體的 滿足도는 유

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Ⅳ. 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強化統制 檢査

Rotter⁵⁾가 개발한 The Internal-External Scale을 번역 사용하였다. Rotter의 Scale은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強化의 內的統制와 外的統制를 나타내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문장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주지 않는 filler 6문항과 신뢰도가 낮은 4문항 및 成人男子에게 해당되지 않는 3문항을 제외시킨 나머지 16문항 즉 총 32문항을 Likert type으로 수정·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強化의 內的統制가 강한 것 즉 특정 사건을 자신의 行動이나 能力에 의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큰 것을 뜻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強化의 外的統制가 강하여 특정 사건을 運命·幸運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知覺하는 경향이 큰 것을 뜻한다.

2) 身體的 滿足度 檢査

이영윤¹²⁾이 번역 사용한 Secord와 Jourard의 The Body Cathexis Scale을 사용하였다. 身體的 滿足度 檢査는 본래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成人男子이므로 男子는 身體 表面보다는 機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Fisher¹¹⁾의 이론에 따라 신체부위중 세부적인 문항을 제외하고 身體 表面에 관한 18문항과 身體 機能에 관한 10문항만을 포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自身の 身體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衣服行動 檢査

衣服受容·身分象徵性·衣服 滿足도에 관한 측면을 측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衣服受容 檢査 :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설문에 의한 衣服受容 檢査 I과 line-drawing에 의한 衣服受容 檢査 II로 구성되었다.

衣服受容 檢査 I은 일반적인 衣服의 色相 및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차림에 대한 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남자양복 Y셔츠·넥타이·性別에 따른 色相의 규제와 casual wear에서의 色·場所·年齡·境遇에 따른 규제를 나타내는 likert-type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色과 casual wear를 넓게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衣服受容 檢査 II는 紳士服을 line-drawing으로 제시

한 것이다. 男子가 가장 자주 입고 많이 所有하는 衣服類型이 신사복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의복유형은 신사복으로 정하였다. Fashion 잡지와 시장조사를 통하여 formal형·informal형 new mode형(最新流行型)으로 분류한 후 專門家들의 評價를 거쳐 각각 세가지씩 제시하였다. 질문내용으로는 5가지 着用目的(명상시·면접할때·친구집방문·공식적모임·스포츠관람)을 제시하였으며 자 着用目的에 제시된 衣服을 3단계(입겠다—모르겠다—안입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사복을 다양하게 선택·착용하는 것을 뜻한다.

② 衣服의 身分象徵性 및 滿足度: 先行研究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Likert-type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즉, 身分象徵性은 이영운¹²⁾에서 5문항을 衣服 滿足度는 이경손¹³⁾에서 8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신분상징성 3문항은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衣服에 滿足하며 衣服을 身分象徵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의복수용 I·신분상징성·의복 만족도에 관한 총 24문항은 무작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의 배경변인에 관한 문항을 첨가하였다. 年齡은 20세부터 60세 이상까지 10년단위로 5단계를, 職業은 7단계의 職業威勢¹⁴⁾를 사용하였다. 教育水準은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6단계로, 經濟水準은 上·中·下의 9단계로 측정하였다.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成人男子 3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標集對象의 年齡과 職業분포는 <표 1>과 같다. 또한 教育水準은 대학교이상이 79%, 高中등학교졸업이 15%로 나타났고 經濟水準은 9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종류층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자료수집은 1982년 6월 成人男子 30명을 대상으로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說問紙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1982년 6월~7월에 서울시내 大學校와 專門大學 各 1개교 및 一般會社와 公共機關에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358부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시킨 333부가 統計處理에 사용되었다.

3. 研究의 限界點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로, 標集對象이 서울에만 거주하는 成人男子이었으며, 職業·교육수준·경제수준 등의 분포가 표집이론에 맞추어 정확히 되지 못했다는

<표 1> 표집대상 연령·직업 분포

연령(단) 구분	20~	30~	40~	50~	60세
	29세	39세	49세	59세	..
명 수	112	96	44	47	4
%	36	32	15	16	1

직업 구분	무직	학생	비숙련직	숙련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명 수	5	34	—	5	23	119	73
%	2	13	—	2	7	41	25	13

점과 둘째로, 測定道具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실증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V. 結果 및 論議

1. 檢査變因의 分布傾向

1) 獨立變因

強化統制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32~160점이나 실제로는 66~126점이었으며, 전체의 73%가 90점부터 109점사이를 차지하여 대체로 強化의 內的統制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身體的 滿足度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8~140점이나 실제로는 56~132점이었으며 전체의 75%가 80~109점사이를 차지하여 身體的 滿足度의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衣服變因

衣服受容 I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나 실제로는 15~33점이었으며, 전체의 71%가 21~28점사이를 차지하였다.

衣服受容 II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45~135점이나 실제로는 62~123점으로서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다양한 分布를 나타내었다.

身分象徵性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나 실제로는 10~32점이었으며 전체의 69%가 17~24점사이를 차지하여 衣服의 身分象徵性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 滿足度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나 실제로는 15~36점이었으며 21~32점사이가 전체의 61%를 차지하여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強化統制와 衣服行動과의 관계

強化統制와 衣服受容 I, II 및 身分象徵性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衣服受容 I은 強化統制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衣服受容 II는 意味있는 正的 상관관계를, 身分象徵性은 意味있는 負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I]은 [가설 I-a, c]에서 부분否定되었다. 이는 強化의 內的統制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사복에 대한 수용이 넓으며(着用目的에 따른 신사복의 着用基準이 뚜렷하지 않으며 衣服을 身分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덜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強化統制를 成就動機의 內的 決定要素로서 간주할 때 強化의 內的統制가 강한 사람은 外的 成就에 대한 열망이 크며 따라서 衣服受容폭이 좁을 것이라고 가정할 Adams의 연구와 外的 報償志向의 인 사람은 衣服을 身分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Gate¹²⁾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強化統制 검사와 衣服受容 검사가 우리나라의 프준화된 검사가 아닌 西국의 것이므로 조사대상간의 文化的 差異에 起因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및 適用年代에 있어서 先行研究와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成人男子들은 衣服着用을 자신의 行動의 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外的인 것으로 생각하여 成就志向에 있어 衣服을 중요시 하지 않고 衣服이외의 다른 要因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身體的 滿足度와 衣服 滿足度와의 관계

身體的 滿足度와 衣服 滿足度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 <표 2>와 같이 意味있는 正的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설 2]는 否定되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滿足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衣服에 대해서도 만족했다는 결과 및 自我概念과 衣服 滿足度사이의 正的 관계를 모두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衣服의 滿足度는 自我概念을 알 수 있는 有力한 尺度라고 생각된다.

4. 獨立變因 相互間의 관계

본 연구에서의 獨立變因인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度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 1% 유의도 수준에서 意味 있는 正的 상관관계($r=.23$)가 있었다. 이는 強化를 자신의 內部的인 能力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표 2> 독립변인과 의복행동변인과의 상관 관계

n = 303

독립변인	의복변인	의복수용 I (색과 casual wear)	의복수용 II (신사복)	신분상징성	의복의 만족도
강화통제		-.08	.44**	-.14**	
신체적만족도					.56**

**p<.01

가 큰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強化統制가 본 연구에서 自我概念과 같은 측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 衣服變因 相互間의 관계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衣服受容 I과 II는 意味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아 색상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casual한 衣服의 受容과 着用目的에 따른 紳士服의 수용은 서로 다른 衣服行動 측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衣服受容 I은 身分象徵性과 意味있는 負的 상관을, 衣服 滿足度와는 正的 상관을 보여 색상과 casual wear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衣服의 身分象徵性을 낮게 評價하고 자신의 의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受容 I과 身分象徵性의 負的 相關은 신분상징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保守的인 衣服態度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¹³⁾를 지지하며, 衣服受容 I과 衣服 滿足度와의 正的 상관은 자신의 衣服에 만족하는 사람이 의복을 보다 融通性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衣服受容 I과 II에 포함된 下位尺度(색, casual wear, formal형, informal형, new mode형) 간의 相互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복수용 II의 informal형은 다른 하위척도들과 1%유의도 수준에서 각각 意味 있는 상관을 보여(색 $r=.21$, casual wear $r=.14$, formal형 $r=.21$ new mode형 $r=.41$ $p<.01$) 전반적인 衣服受容도를 측정함에 있어 informal형이 가장

<표 3> 의복변인 간의 상관관계

n - 303

	수용 I (색과 casual wear)	수용 II (신사복)	신분상징성	만족도
수용 II	-.08			
신분상징성	-.26**	-.08		
만족도	.12*	.08	-.18**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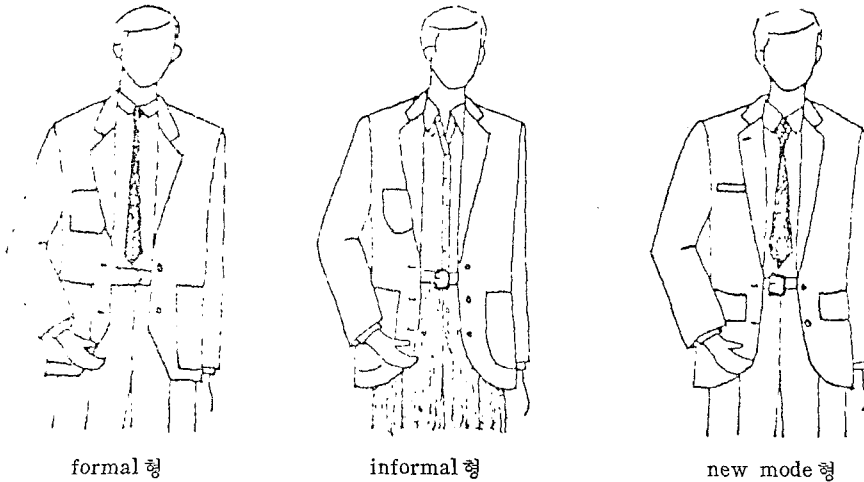


그림 1. 제시된 그림은 각 유형에서 가장 많이 선호된 의복임

유리한 척도로서 作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6. 紳士服에 대한 受容 現況

첫째, 紳士服의 style 別 수용정도에 있어서 成人男子들은 넥타이 차림의 single 양복(N=12.16)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며 그 다음으로 combi 차림(N=10.95), 조끼있는 single 양복(N=10.93), casual jacket(N=10.49) safari jacket(N=10.24) 등의 순서로 選好하였고 formal 형의 double breasted jacket(N=8.95) 및 new mode 형(N=8.18)을 낮게 수용하였다. New mode 형이 낮게 수용된 것은 男子들은 最新流行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결과²⁰⁾를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成人男子들은 평상시 입는 옷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는 것을 選好하며 어색해 보이거나 복잡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衣服受容 程度는 年齡과 職業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年齡과의 관계에서 젊은 層은 informal 형의 casual jacket(F=5.32, p<.01)과 safari jacket(F=4.90, p<.01)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年齡이 많을수록 formal 형의 조끼있는 single jacket(F=11.52, p<.01)과 double breasted jacket(F=3.62, p<.01)을 선호하였다.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조끼가 있거나 없는 single 양복이 事務職, 管理職 專門職등의 精神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넓게 수용되어 (F=3.71, 3.69, p<.01) 成人男子들 사이에 연령층과 직업수준에 따른 衣服基準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세째, 着用目的에 따른 신사복의 수용정도에 있어서

조끼없는 single 양복이 스포츠관람을 제외한 모든 着用目的에 높게 선호되었다. 이 밖에 成人男子들은 평상시·친구집방문·스포츠관람時에 informal 형의 衣服을 着用하며 면접할때와 공식적모임에는 넥타이를 맨 formal 형의 衣服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상시와 친구집 방문이 衣服類型의 規制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衣服類型을 신사복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類型을 제시한다면 着用目的에 따른 衣服選擇에 있어 보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7. 檢査變因에 대한 연령別 比較

본 연구의 結果에 대해 年齡層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調査對象을 20·30대와 40·50대의 두 연령층으로 분류하여 모든 變因간의 상관계수를 比較하였다.

첫째, 獨立變因과 衣服行動變因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표 4>와 같이 衣服受容 II와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度와의 관계는 20·30대에서만 意味있는 正의상관을 보여 40·50대에서는 신사복의 수용정도와 強化統制 및 身體的 滿足度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은 衣服基準이 變化되기 쉬우나 中年層은 衣服着用에 있어서 이미 나름대로의 고정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要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背景變因과 獨立變因 및 衣服行動變因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표 5>와 같이 身體的 滿足도와 經濟水準의 관계 및 衣服 滿足도와 職業·經濟水準의 관계는

〈표 4〉 독립변인과 의복변인간의 상관계수의 연령별 비교

독립변인	연령	의복변인		신분상징성	만족도
		의복수용 I (색과 casual wear)	의복수용 II (신사복)		
강화통제	20·30대 (n=204)	-.09	.56**	-.12**	.17**
	40·50대 (n=99)	.05	.08	-.20*	.29**
신체적만족도	20·30대 (n=204)	.07	.12*	-.04	.55**
	40·50대 (n=99)	.05	.08	-.07	.60**

*p<.05
**p<.01

〈표 5〉 배경변인과 독립변인 및 의복변인과의 상관관계의 연령별 비교

독립·의복변인	연령	배경변인		교육수준		경제수준	
		직업	업	20·30대 (n=204)	40·50대 (n=99)	20·30대 (n=204)	40·50대 (n=99)
강화통제		.08	-.08	-.03	-.07	.08	.04
신체적만족도		.07	.16	.10	.04	.11	.24**
의복수용 I		-.15*	.01	.04	-.04	-.03	.05
의복수용 II		-.03	-.20**	-.06	-.14	-.06	-.11
신분상징성		-.04	-.01	.07	.07	.05	.03
만족도		.10	.20**	.08	.16	.07	.25**

*p<.05
**p<.01

40·50에서만 意味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中年層에게는 職業과 經濟水準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中年層은 젊은층에 비하여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衣服受容과 職業과의 관계에서 衣服受容 I은 20·30대에서만 意味있는 負的상관을, 衣服受容 II는 40·50대에서만 意味있는 負的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젊은층은 직업의 地位가 높아질수록 색과 casual wear에 대한 受容을 낮게 하며 中年層은 신사복의 수용을 낮게 하였으며 이는 年齡에 따른 衣服基準의 範圍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結果로써 強化統制 및 身體의 滿足度 등의 心理 측면과 연령이 成人男子의 衣服行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成人男子들 사이에 연령과 직업수준에 따른 衣服基準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強化統制 및 身體의 滿足과 관계지을 수 있는 다양한 의복행동변인들을 첨가하여 同質年齡層의 남성 집단을 代象으로 연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結果를 기초로 紳士服에 대한 受容度를 衣服受容 基準으로부터의 이탈·비이탈로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4th ed.) New Dehl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78)
- 2) Form, W.R. and G. Stone, "Urbanism, Anonymity, and Status Symbo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504~510, (1957)
- 3) Hoult, T.F., "Clothing and the Status Ratings of Men: An Experiment," in Roach, M.E. and J.R.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250~256, (1965)

- 4) Rotter, J.B. and, D.J. Hochreich, *Personality*, Glenview Scott, Foresman, (1975)
- 5) Rotter, J.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 80, No. 1, 1~28, (1966)
- 6) Lefcourt, H.M.,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No. 4, 206~220, (1966)
- 7) Phares, E.J.,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Amount of Social Influence Exer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No. 5, 624~641, (1965)
- 8) Adams, A. E., "Clothing Acceptance for the Self and for Others, and Adherence to Selected Clothing Norms as Related to Selected Aspects of Personality in a Sample of Black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72)
- 9)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Inc., (1966)
- 10) Mciean, F.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the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 (1978)
- 11) Williams, A., "Fit of Clothings Related to Body Image, Body Build, and Selected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Univ., (1974)
- 12) Richards, E.A. and R.E. Hawthorn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No. 3, 190~194, (1971)
- 13)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14) Creekmore, A.,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63)
- 15)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16) 이경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17) Men's wool Club Fashion Manual, 81/82 Fall & Winter, 82/83 Spring & Summer.
- 18) 홍영숙, 지위불일치에 관한 연구. —긴장징후와 직업적 반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 19) Kness, D.M., "The Clothing Attitudes and Social-Political Beliefs of University Men Identified as Conservative and Hippy Dress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Penn State Univ., 1971,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51, (1971)
- 20) Minshall, B., G. Winakor and J.L. Swimney, "Fashion Preference of Males and Females, Risks Perceived and Temporal Quality of Sty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No. 4, 369~379, (1982)